

최재연

최재연은 현재 런던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화가이자 설치미술가이다. Central Saint Martins Fine Art 석사 (2020) 및 University of East London Fine Art 박사 (2024) 학위를 취득했다. 사물의 물질성과 회화, 공간, 그리고 장소 간의 관계를 탐구해 오고 있다.

사물의 본질을 분석하고 미학적으로 병치함으로써 그 의미를 재구성하며, 재료의 잠재력이 내면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현재는 확장된 회화에서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무질서와 프레임, 공생 그리고 불협화음에 집중하여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원피스를 해체하여 재구성한 크롭 자켓과 스커트 위에 코듀로이의 질감으로 기하학적 선형을 담았습니다. 베이지 코듀로이 멜빵바지에서 추출한 패치는 브라운 원단 위에서 곡선을 그리며 색감과 텍스처의 대비를 이룹니다. 특히 실제 나뭇잎에 에나멜 코팅을 입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색을 차단하고, 코듀로이 패치 위에 자연스러운 시각적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기존의 의류에 자연의 요소를 결합한 이 시도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지속 가능한 패션의 순환적 가치를 보여줍니다.